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특징 및 현황과 활동거점 연구*

김중규**

〈목 차〉

머리말

I. 참여자 특징 및 현황

II.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주요 활동거점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연구자의 2019년 발표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특징”과 연계된 군산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논문이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참여자의 성격 규명과 참여자 현황 및 그들이 활동한 중요거점을 확인하고 있다.

연구결과 군산지역 참여자의 특징은 이들이 동학의 남,북접 측면에서는 옥구와 임피지역은 북접계열로 확인되며 군산진은 남북접 구분이 어렵다. 또한 참여자의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장

성씨로 본 신분계층 확인의 경우 옥구와 임피지역은 지배계층의 참여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군산진은 상업 및 수군기지라는 환경 때문인지 중인 이상 계층의 참여가 많은 측면을 보였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주요 활동 거주지는 옥구의 경우 옥구와 임피의 경계지역인 대야면과 지경리 일대, 임피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있는 금강변 포구와 나루터, 군산진은 경포리 지역이 주요 활동지역으로 추정된다.

군산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50명이다. 이들을 1894년 행정구역에 따라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옥구지역은 5명, 임피지역이 30명, 군산진지역은 15명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산진 좌수 문규선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이다. 그 이유는 좌수라는 직책이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의 가장 높은 지위이기 때문이다. 좌수는 그 지방의 권력자들인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유림들이 선출하였기에, 좌수 문규선이 동학에 오랫동안 물든 자라서 충살하였다는 내용은 동학 참여자들에 대한 신분계층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놀라운 내용이다. 이처럼 좌수가 동학군에 참여한 사례는 전북지역에서도 그 세력이 컸던 남원 지역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서산군수 성하영의 보고에 의하면 군산진은 1894년 6월부터 11월까지 동학군의 세력이 유지되는 몇 안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산지역이 향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군산지역 농민군이 활동한 중요거점을 총 7개소로 특정하고 있다. 거점지역 7개소를 살펴보면 옥구지역은 2개소이다. 첫 장소는 “구 옥구현 관아터”이다. 이곳은 허진이 이끄는 옥구동학농민군이 옥구현의 무기를 탈취하여 백산봉기에 참여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거점은 옥구지역 동학 참여자들이 많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야 지경리와 천도교 옥구교구 교당”이다.

임피지역의 주요거점은 3개소이다. 첫 장소는 “나포면 원나포리 공주산 일대”이다. 이곳은 이두황의 진압군에게 나포 동학군 14명이 포살 당한 곳이다. 두 번째 장소는 김문화 접주가 활약한 “성산면 성동마을 일대”이다. 세번째 장소는 김준홍접주가 1900년 동학 재기를 꿈꾼 “오성산 동편 기슭 조씨제각 인근 산막”이다. 군산진은 중요 거점지역이 2곳이다 첫 장소는 1894년 경군 초토사 홍계훈의 진압군이 상륙한 “군산진 성터 (내항 수덕공원)”이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군산진에서 가장 활발하게 동학군의 활동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중동 경포천변 (서래당산)”이다.

이 논문은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간악한 외세를 물리치겠다는 일념으로 일어난 힘 없는 백성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위로하고 되살리는 방법은 그들의 백성과 국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인정해주고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해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시작은 참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

이 자신들의 소망을 소리높여 외친 장소를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입을 말하고 있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동학, 군산, 임피

머리말

2019년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정해진 의미 있는 해였다. 본 연구자는 우연한 기회에 군산지역 서래접주 김학배의 후손을 만나 군산 동학의 실체를 확인하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소장 중인 1894년 갑오년 자료를 확인하며, 군산지역과 관련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그간의 무지함에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후 박물관에서 “군산 동학농민혁명에 물들다”라는 제목의 군산의 동학농민혁명 특별 기획전과 제1회 군산의 동학혁명연구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글은 연구자가 2019년 발표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특징” 논문과 연계된 내용의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논문이다. 글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참여자의 특징과 현황 그리고 그들이 활동한 중요거점을 확인하고 있다. 연구자가 이러한 내용을 논문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향후 군산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군산과 동학농민혁명의 상관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연결점이 군산지역 참여자에 대한 조사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향후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을 알리고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활약한 중요장소 즉 거점지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람(참여자)과 장소(활동거점)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자 함에 있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는 다행히 그동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노력으로 조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또 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제1회 군산의 동학농민혁명 세미나에서 이이화는 “동학농민

혁명과 군산지방의 역할”을 통하여 군산지역 동학농민군들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이병규는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전라도지역 농민군의 활동”에서 군산진 관련 참여자에 대한 성격¹⁾을 논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조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학계의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군산지역이 호남의 북쪽 끝에 위치하여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 등 중요 사건과 일정 부분 거리가 있다는 심리적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자는 그간의 연구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 자료와 군산 거주 가문들의 구전 내용을 취합하여 군산에서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특징과 현황을 1894년 당시 군산지역 행정구역에 따라 옥구, 임피, 군산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활동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중요거점이라는 명칭으로 역시 옥구, 임피, 군산진 지역으로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들이 군산지역에서 활동할 때 거점지역으로 활용하였거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요지역을 정리하는 일은 일반인들에게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역사 차원의 사실로 재인식 시킴으로서 향후 추모와 기념의 토대가 되리라고 본다.

I. 참여자 특징 및 현황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특징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동학농민혁명군의 남북점과 관련한 구분이다. 남북점의 구분은 가장 단순하게 동학농민혁명 기간 그 지역 동학군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기준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자

1) 이병규, 2016, 「갑오군정실기」를 통해 본 전라도지역 농민군의 활동,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15쪽.

성씨(姓氏)를 통해서 신분계층과 거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참여자 성씨(姓氏)를 이용한 신분계층의 조사는 참여자의 성씨와 본관이 명확한 경우가 많지 않아 조사의 신뢰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통사회의 경우 씨족 구성원의 이동이 많지 않았으며, 특히 군산지역은 특정 혈연 집단이 동일 장소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는 동성촌(同姓村)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참여자의 정보가 너무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찌보면 유일한 정보인 성씨(姓氏)를 활용하여 신분계층과 거주지를 추정해보는 비교조사는 시도해볼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성씨(姓氏)를 통하여 신분계층과 거주지를 추정하는 비교방법은 4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 확인된 참여자와 그가 활동한 지역을 옥구, 임피, 군산진으로 구분한다. 둘째 지역별 지배계층의 성씨와 참여자의 성씨를 비교하여 지배계층과 평민을 구분한다. 셋째 지역 지배계층은 토착 지배계층(토반 土班), 이주해온 지배계층(객반 客班), 행정실무 지배계층(中人)으로 나누어 비교한다. 넷째 지역별 동성촌과 참여자의 성씨를 비교하여 참여자의 근거지와 주요 활동지를 추정한다.

참여자 현황의 경우 등록된 명단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록)에 등록된 명단²⁾을 근거로 하되 군산지역의 지역사 자료인 「천도교 옥구교구사」³⁾, 「군산시사」⁴⁾에 기록된 동학농민혁명 참여 인물 그리고 지역에 구전으로 전하는 인물들을 참여자로 정리하였다. 체계적인 참여자 정리의 필요성으로 참여자 출신지 구분은 참여자의 특징 조사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서울: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3) 문태표, 1963, 『천도교 옥구교구사』, 천도교옥구교구.

4)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군산: 군산시편찬위원회, 1038쪽.

동일하게 1894년 군산시의 행정구역에 따라 옥구, 임피, 군산진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출신 지역을 확인하는 일은 그간에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행정구역의 잦은 변화에 따라 혼돈의 여지가 있어 갑오년 당시의 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출생지와 거주지를 모르는데 사망 장소만 확인된 경우는 사망 장소를 출생지와 사망 장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활동지역을 거주지로 분류하였다,

130년 전의 사건과 관련자를 확인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처럼 실패한 혁명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들이 죽거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에 그들의 행적은 더욱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기년재단”에서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록⁵⁾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당시 관련 자료들을 발굴 연구하고 있어 다행히 많은 참여자의 이름과 출신지들이 밝혀지고 있다. 군산지역은 현재까지 총 50명의 참여자가 확인되었다.

1. 옥구(沃溝)지역

옥구는 군산의 서남부에 위치 곳이다. 과거 옥구현이 관할하던 지역으로 당시에는 8개 면(面)으로 가구 수 4,366호에 14,389명이 거주하였는데 그중 남자가 6,322명, 여자는 8,067명이었다.⁶⁾ 중요 성씨로는 제주 고(高)씨, 두릉 두(杜)씨, 진주 강(姜)씨, 남평 문(文)씨, 담양 전(田)씨가 있다. 옥구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현재까지 5명이 확인되었다.

1) 참여자의 특징

옥구지역 참여자의 성격을 이해하는 특징중에 하나는 옥구지역이 호

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서울: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6) 『여지도서』, 전라도 옥구편, 1760.

남에 위치하지만 북접 계열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옥구의 장경화 대접주 등 지도부들이 북접의 지도자로 활동한 사람들이 다수 있어 천도교 기록 및 각종 문헌에 활동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⁷⁾ 그 사례로 옥구 동학의 지도자 장경화는 1893년 최시형을 따르는 북접이 주도한 보은 장내리 집회에 옥구를 알리는 것 발을 앞세우고 대접주라는 호칭을 쓰며 참여했다. 당시 남접의 주요 세력이 원평에 모였던 것과 비교된다. 또한 장경화 대접주는 농민군의 2차 봉기에 앞서 남북접이 서로 배척하며 갈등하던 상황에서 전북지역 북접 우두머리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만난 모임에 옥구 대표로 참석하기도 한다. 이후 양측이 화합하여 북접이 2차 봉기에 거병하기로 결정되자 옥구의 허진 등과 함께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함으로써 전라북도 내 북접계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장경화는 농민혁명 실패 후 1896년 최시형이 강원도 횡성의 치악산 골짜기인 수레너미재 인근에 은신하고 있을 때, 최시형을 찾아온 최초의 두령급 인물 중 한 명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⁸⁾ 그런데 이때 동행한 5명의 우두머리급 방문자들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명 즉 장경화, 허진, 양기용이 옥구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대접주(장경화), 장령(허진), 두목(양기용)임을 볼 때 옥구의 동학 참여자들이 최시형과 각별한 관계였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옥구지역 참여자의 또 다른 특징인 참여자 성씨(姓氏)를 통한 신분계층과 거주지 추정과 관련하여, 옥구는 군산지역 내에서도 오래된 마을들이 많이 자리한 고장이다. 주요 성씨(姓氏)는 변화를 거쳐 왔지만 이른바 전통적 토착 지배계층이라고 칭하는 제주 고(高)씨, 두릉 두(杜)씨, 남평 문(文)씨, 담양 전(田)씨, 진주 강(姜)씨 등 다섯 성씨와 중간에 이주해 왔다고 칭하는 전의 이(李)씨, 창령 성(成)씨, 경주 김(金)씨, 광산

7) 오지영, 1975, 『동학사』, 민학사.

8) 박인호, 1921, 『천도교서』.

김(金)씨, 해주 오(吳)씨 등 다섯 성 씨가 있다. 그리고 역시 지역의 행정 실세였던 집안으로 여산 송(宋)씨, 밀양 박(朴)씨, 달성 서(徐)씨, 인동 장(張)씨, 연안 차(車)씨 등의 다섯 가문이 있다.

이들 지배계층 성씨를 참여자 성씨(姓氏)와 비교해 보았다. 참여자 5명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이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결과를 보면 참여자 5인 중 옥구지역 토착 지배계층의 성씨는 참여자가 없었으며, 이주 지배계층(오씨 1명)과 행정실세 지배계층(장씨 2명)에서는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의 경우 옥구지역 참여자 중 거주지역이 확인 가능한 「천도교 옥구교구사」⁹⁾에 기록된 참여자들의 주소지를 볼 때 옥구와 임피의 경계인 현 대야면과 지경리 일대가 주요 거주지역으로 추정된다.

2) 참여자의 현황

옥구의 참여자는 다섯명이다. 이들은 장경화(옥구대접주), 허진(두목), 오사옥(천도교옥구교구 기록 여성으로 추정)¹⁰⁾, 장원경(천도교옥구교구 기록)¹¹⁾, 양기용(두목) 등이다¹²⁾. 이들 중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기록된 오사옥과 장원경은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목록에 등록 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 장경화 (張景化 생몰연대 미상)

장경화는 현재까지 확인된 군산지역 동학혁명 참여자 중 지위가 가장 높은 지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그는 보은 장내리 집회에 참여한 전국 19개 포(包) 중 한 곳인 옥구지역의

9) 문태표, 1963, 『천도교 옥구교구사』, 천도교옥구교구.

10) 오사옥 1857년 출생, 1894년 입도.

11) 장원경 1866년 출생, 1893년 입도.

12)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군산: 군산시사편찬위원회, 1038쪽.

대접주였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각 포와 접마다 지역을 표시한 깃발을 세웠으며 참여자를 보면 충의대접주 손병희, 금구대접주 김덕명, 정읍대접주 송화중, 옥구대접주 장경화 등 이후 농민혁명의 주역들임을 볼 때 장경화 대접주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이후 장경화는 백산봉기가 일어나자 본인 휘하의 허진을 장령으로 옥구농민군을 이끌고 백산에 합류하게 하였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장경화는 9월 농민군의 2차 봉기에 앞서 남북접 간의 갈등 시기에 북접에 속한 전라도 출신 두목으로 분류되는 금구 김방서, 전주 서영도 허내원 등과 회합을 하여 동학농민군 내부 남북접 갈등의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이후 남북접 화해와 동시에 동학농민군 2차 거병이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장경화 등 전라도 내 북접들은 익산에서 만나 회합 한후 장경화 대접주는 허진 등과 옥구의 농민군을 이끌고 거병하여 논산으로 진군하였다.¹³⁾

장경화는 우금치 전투의 패배 등 동학농민혁명 실패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아 1896년 도피 중인 해월 최시형과 만난 호남지역 지도자로 천도교 측 기록¹⁴⁾에 등장한다. 당시 해월 최시형은 강원도 횡성 수레너미재 아랫마을 초막에 은신 중이었다.

1896년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색출과 체포로 긴박한 시기였음에도 살아남은 지도자급 인물들이 은신 중인 해월 선생의 은신처를 찾아갔다는 사실은 그들이 동학 내에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다. 당시 방문자는 호남지역 고산의 박치경, 옥구의 장경화, 허진, 양기용, 그리고 출신 지역을 알 수 없는 조동현 등이었다. 이들은 최시형과 만나 안부를 묻고 동학의 재기를 모색했다고 한다. 천도교 기록에는 이 만남을 계기로 위축된 교세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기록한다.

13) 오지영, 1975, 『동학사』, 민학사.

14) 박인호, 1921, 『천도교서』.

그는 1896년 김방서를 따르다 패전 후 숨어 지내던 익산 출신 정용근을 1896년 본인 휘하로 받아들여 동학의 재건을 모색하기도 한다. 장경화에 대한 기록은 1896년을 마지막으로 찾을 수가 없다.

㉠ 허진 (許鎭 생몰연대 미상)

허진은 1894년 3월 전라도 옥구의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 「동학사」에서는 백산에 집결한 장령급 인물 중에 옥구의 허진이 등장한다. 다른 기록인 「천도교회사초고」, 「천도교교서」에서 “허진은 옥구에서 참여하다”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자료인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에는 “1894년 3월 8일 전죽두가 거느린 수천 명이 부안읍에 들어가 군기고를 탈취하였고 옥구, 태안, 고부의 군기고도 탈취하여 고부에 진을 쳤다”라고 하여 허진이 농민군을 이끌고 옥구의 군기고를 탈취하여 기포 하였으며 백산봉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허진은 농민군의 2차 거병 때 남북접 간의 화해에 따라 옥구의 장경화와 함께 병사를 일으켜 논산, 삼례에 집결하였다. 이후 농민군의 패전 속에서 살아남은 허진은 1896년 같은 옥구 출신 장경화, 양기용 등과 함께 강원도 횡성 수레너미에 은신 중인 해월 최시형을 찾아가 동학의 재건을 도모한다. 이후 허진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허진은 옥구의 대접주 장경화와 함께 장령으로 백산봉기와 동학농민군 2차 거병 및 동학의 재개 노력 등을 함께 한 중요한 인물이었다.

㉡ 오사옥 (吳士玉 1860~1935)

오사옥은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기록된 참여자이다. 그녀는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에서 1860년 태어났다. 34세인 1894년 입교하여 전교사를 역임하며 교인 접대의 공로가 컸다고 전한다. 오사옥은 여성으로 추정 된다.

㉢ 장원경 (張元敬 1866 ~ 1927)

장원경은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기록된 참여자이다. 그는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에서 1866년 출생하였다. 1894년 4월에 28세의 나이로 입도하였다. 「천도교 옥구교구사」에서는 장원경에 대하여 “장원경은 동학혁명 이후 지목이 극심하여 동지 셋달 눈 내릴 때 집에서 밥을 먹어 먹지 못하시고, 지풀 속에 숨어서 밥을 먹었으며, 때문에 집안 살림은 거의 파산지경에 달하였으나 의지는 추위도 굶히지 않으셨다” 라고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다.¹⁵⁾

1993년 교구사를 정리할 때 기록이 없어 원로 교도 네 명의 증언을 토대로 교구사를 편찬했다고 하는데 증언자 중 한 분인 장맹연 여사가 장원경의 근친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 양기용 (梁琦容 생몰연대 미상)

양기용은 「군산시사」와 천도교 측 자료에서 확인되는 옥구지역 두목급 참여자다. 「군산시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허진과 양기용이 참여했다고 기록한다. 또한 천도교 측 기록에는 동학혁명에서 패배 후 1896년 강원도 횡성 수레너미재에 은신 중인 최시형 선생을 찾아가 동학의 재건을 논의한 호남지역 방문자로 박치경, 허진, 장경화, 조동현, 양기용이 전한다. 이후 천도교 측 기록¹⁶⁾에서 “1896년 4월 각 처의 두목들을 연락하니 믿을만한 두령은 반석처럼 온전했다. 연락이 되는 두령은 옥구의 양기용 등이 있다.”고 하여 양기용이 옥구지역 두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양기용은 출생지 및 생몰연대를 알 수 없다. 옥구지역의 양씨는 남원 양(梁)씨가 옥구 대야 일대에 세거하여 남원 양(梁)씨로 추정된다.

15) 문태표, 1963, 『천도교 옥구교구사』, 천도교옥구교구.

16)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 1920, 『천도교회사초고』.

2. 임피(臨陂)지역

임피지역은 군산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다. 1895년 임피현¹⁷⁾은 13개 면(面)에 가구수 4,545호이고 인구가 22,291명이었다. 그중 남자가 8,427이고 여자가 13,864명이다. 주요 성씨는 여양 진(陳)씨, 전주 이(李)씨, 평강 채(蔡)씨, 우주 황(黃)씨, 해주 오(吳)씨, 남원 양(梁)씨 등이 고 「신증동국여지승람」¹⁸⁾에 기록된 토산품은 대나무, 닥나무, 뽕나무, 게, 가시연밥, 도미, 뱀어 등인데 특산품을 보면 임피가 강을 낀 산간지역임을 알 수 있다. 임피는 군산지역에서는 가장 큰 면적의 행정구역이었다. 임피는 익산과 접하고 있어, 1884년 6월 최시형이 익산 미륵산 사자암에서 전북지역 포교를 할 때 동학이 전래 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⁹⁾ 현재까지 확인된 임피지역 동학농민군은 30명이다.

1) 참여자의 특징

임피지역은 동학의 남북접 구분 시 북접에 속하는 고장이다. 그 이유는 농민혁명군 2차 봉기 때 북접으로 최시형의 지시에 따라 거병을 한 지역으로 임피가 거론되며,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진관삼이 「동학사」에 북접계 인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관삼은 1894년 전라도 익산 각지에서 집강소 설치 활동을 하며 사무을 본 인물이다. 특히 그가 설치한 회소들 중에는 임피의 나포가 있다. 진관삼은 임피지역에 여양 진씨가 많이 거주하기에 임피가 고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임피지역 참여자의 성씨(姓氏)를 통한 신분계층과 거주지 확인 결과를 보면 임피지역의 토착 지배계층으로는 청송 심(沈)씨, 우주 황(黃)씨, 평강 채(蔡)씨 등 3개 성씨를 꼽을 수 있다. 이 밖에 이주해온 지배계층

17) 『임피현 읍지』, 임피현, 1895.

18)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임피현, 1530.

19) 신순철, 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 혁명사』, 서울: 서경문화사, 27쪽.

으로는 여양 진(陳)씨, 초개 최(崔)씨, 신천 강(康)씨를 들 수 있다. 또한 행정실무 지배계층으로는 한양 조(趙)씨, 전주 이(李)씨, 평택 임(林)씨 등이 있다. 임피지역의 주요 9개 성씨와 현재까지 확인된 참여자 30명을 비교해 보면 토착 지배계층인 심(沈), 황(黃), 채(蔡)씨는 참여자가 한 명도 없고, 이주해온 지배계층 문중에서는 본관의 확인은 불가하지만 진(陳 1명), 최(崔 3명)씨 문중의 4명이 성씨가 동일하다. 행정실무 지배계층인 조(趙 3명), 이(李 5명)씨 두 가문에서도 8명이 성씨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임피지역의 참여자 성씨 조사에서는 토착 지배계층은 참여자가 없고, 이주 지배계층과 행정실무 지배계층은 12명의 참여자가 발견되어 참여자 30명 중 절반 이상이 지배계층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동학 참여자의 주요 거주지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있는 금강변 포구와 나루터 지역인 성산면 성동, 오성산 기슭 서포와 나포 지역이 동학농민군의 주요 거주지역으로 추정된다.

2) 참여자의 현황

임피지역은 최시형이 1880년대 중반경 익산에서 호남지역 포교를 시작할 때²⁰⁾ 포교의 거점이었던 익산과 접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옥구보다도 먼저 동학을 받아들였고, 때문에 익산과 함께 최시형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현재까지 확인된 농민혁명 참여자의 숫자에서도 임피는 군산의 3개 지역 중 가장 많은 30명의 참여자 숫자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학농민군이 설치한 회소의 경우 성산면 성동²¹⁾과 나포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진관삼 (陳官三 생몰연대 미상)

20) 신순철, 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 혁명사』, 서울: 서경문화사, 27쪽.

21) 미나미 고시로, 2015, 「미나미 고시로 문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5』, 동학혁명기념재단, 139쪽.

진관삼은 임피의 토착성씨인 여양 진(陳)씨로 추정된다. 그의 주요 활동지역은 익산 인근 지역이다. 그는 여러 곳에 집강소와 회소를 설치하였고 이들 집강소와 회소의 운영을 하다 같은 해 10월에 최시형의 명령에 복적이 총 거병하는 2차 봉기에 임피 동학군을 이끌고 참여하였다.

② 김해룡 (金海龍 ? ~ 1894. 11. 21)

김해룡은 전라도 임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1894년 11월 21일 우금치 전투 패배 후 퇴각하다 서천에서 사망한다. 최현식은 「갑오동학혁명사」에서 김해룡과 관련하여 “호우(湖右 충청서남지방)에서도 10월 이후 동학의 세력이 떨쳐 그 가운데서도 남포(藍浦), 임천(林川), 한산(韓山), 서천에서 추용성, 추성재, 이우삼, 이성구, 김윤선 등 동학의 수접주들이 수천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했으며 여기에 호남의 김제 강명선(姜明善), 임피 김해룡(金海龍) 등이 거느리는 호남의 동학농민군이 금강을 건너 이에 합세하니 그 세력은 능히 호우 지방을 한때나마 장악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11월 19일(陽 12월 15일) 남포(藍浦)에서는 관군이 패하여 홍주, 보령, 남포 비인의 패잔병들이 도망하여 서천으로 돌아왔는데 그 수가 2천 명이었고 남포주방장 최재홍(崔再弘)은 보고했다.”라고 하여 김해룡이 임피의 농민군을 이끌고 있었음을 기록한다²²⁾ 김해룡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압군이었던 서산군수 성하영의 보고로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11월 20일 한산을 점령하고 한산 서천 전투에서 동학도 수백을 격살하였으며, 21일 서천과 한산에서 도망한 김제 출신 강명선 등 7인과 지도자급 4명을 포살하였다. 신하포에서 강을 건너 임피의 김해룡 등 7명의 적을 급습하여 총살하였다”고 적고 있다.²³⁾ 신하포는 서천군 신아포를 칭하는 것으로

22) 최현식, 1994, 『갑오동학혁명사』, 서울: 신아출판사, 巡撫先鋒陣膽錄 甲午 十一月二十二日 條.

23)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

추정된다. 그곳에는 금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고, 그 하천을 넘으면
임피 월포로 넘어가는 서천 망월리 나루터가 있다. 아마도 김해룡은 망
월리 나루 인근에서 금강을 넘어가려다가 발각된 것으로 추정 된다.

③ 김문화 (金文化 ? ~ 1894. 11. 25)

김문화는 임피 북일면 성동(성산면 성덕리) 출신이다. 성동마을은 제
주고씨와 김해김씨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었다. 그는 동학에 입도하여
접주가 된 후 성동마을에 회소를 설치하고 주민들로 부터 세미를 거두
었으며 성동마을의 포구인 원포(달개나루)에서 금강을 오가는 장사꾼들
로부터 전곡을 징수하였다. 「미나미 고시로 문서」²⁴⁾와 전라감사에게 올
린 문서에 의하면 같은 마을사는 도정 고태홍과 갈등하여 1894년 11월
25일 동학군이 패퇴하자 고태홍 무리에게 붙잡혀 화형을 당하고 그의
집도 불태워졌다.

④ 최중여 (崔仲汝 1860 ~ 1894)

최중여는 임피면 영창리 출신이다. 그는 1894년 9월 당시 35세의
나이에 농민으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참여하였다. 최중여은 1894
년 12월에 체포되어 투옥 후 전주 감영에서 사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참여자 자료²⁵⁾에 등록되어 있다.

⑤ 주성갑 (朱聖甲 생몰연대 미상)

주성갑은 「천도교회 월보」에 “김성화씨는 옥구군 나포면 강정리 사

명기념재단, 43쪽.

24) 미나미 고시로, 2015, 「미나미 고시로 문서」,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5』, 동학농
민혁명기념재단, 139쪽.

25)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
위원회백서』.

람으로 고(故) 주성갑의 부인이다. 주씨는 본래 갑오년에 수접주로 동학란에 지목이 커서 나포로 피신하여 생활하다 10여 년 전에 환원하였다”라고 활동을 기록하여 동학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기념사업의 참여자 자료²⁶⁾에 기록되어 있다.

⑥ 최두환 (崔斗煥 ? ~ 1926. 3.21)

최두환은 「천도교 월보」 184(1926. 4. 43쪽)에서 옥구군 임피면 술산리(戌山里)인이며, 1894년 7월에 입교하여 접주가 되었다. 최두환은 동학혁명 실패 후 피신하였다가 1926년 3월 21일 사망하였다.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참여자 자료²⁷⁾에 등록되어 있다.

⑦ 김준홍 (金準弘 1863~1900.4)

김준홍은 전라북도 임피 오성산 삼막 출신이다. 1863년 출생하여 1894년 7월에 임피에서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동학혁명 실패 후 살아남아 1899년 9월 동학 재기를 도모하다. 임피 오성산 산막에서 체포되어 1900년 4월 전주 감영에서 처형되었다. 김준홍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재판소에서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본사 도공사원(都公事員) 이규환(李圭煥)이 사원 10명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 동학 무리를 체포하려고 각처를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임피 오성산 산막리에 도착하여 지난번에 체포해 온 고문선의 무리인 김준홍(金準弘) · 류덕장(柳德長) · 김성초(金成初) · 장한여(張漢汝) · 이치옥(李致玉) 및 고산 용암리(龍巖里)의 이관동(李關東) · 이용구(李龍九) 등 일곱 놈이 무리를 모아서 움직이고자 상의하는 정황을 엿탐하

26)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2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여 모두 체포하고, 기폭(旗幅) 2개와 모임을 기약하는 통문 묶음과 염주 투서(念珠套署)와 주문 부적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가져왔습니다.”라고 보고 한다.²⁸⁾

김준홍은 오성산 산막 혹은 산막리의 집에서 체포된다. 현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 인근에 산막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산면 수심마을 오성산 주봉 능선 아래에 위치한 조씨문중 제각 일대를 과거 마을사람들이 산막이라 칭하였다 하는데 이곳이 김준홍의 거주지인 산막으로 추정된다.

⑧ 장한녀 (張漢女 생몰연대 미상)

장한녀는 1894년 9월 전라북도 임피에서 동학에 입교하였다. 농민 혁명에 참여했다 실패 후 은신하다가 1900년에 임피 오성산 산막리에서 김준홍 등 7명과 함께 동학 재기를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4월 종신징역에 처해 졌다.

⑨ 홍교식 (洪敎植 생몰연대 미상)

홍교식은 1894년 10월 전라도 임피에서 김상철 등과 함께 동학 농민군으로 2차 봉기에 참여했다.

⑩ 홍경식 (洪敬植 생몰연대 미상)

홍경식은 1894년 10월 전라도 인피에서 유원수 등과 함께 동학농민군으로 2차 봉기에 참여했다.

⑪ 최순봉(崔順奉 생몰연대 미상)

최순봉은 1894년 10월 전라도 임피에서 유원술 등과 함께 동학농민

2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8, 「별계 사법품보」,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0』,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이완용 질품서.

군으로 2차 봉기에 참여했다.

⑫ 김상철 (金相哲 생물연대 미상)

김상철은 1894년 10월 전라도 임피에서 동학 2차 봉기에 유원술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⑬ 유원술 (劉原述 생물연대 미상)

유원술은 1894년 10월 전라도 임피에서 김상철 등과 함께 동학 2차 봉기에 참여하였다.

⑭ 이정문 (李正文 생물연대 미상)

1894년 전라도 임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⑮ 신관순 (申官順 1870~1952)

전라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에서 출생한 신관순은 자는 현성이다. 삼형제 중 첫째 아들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 이후 천도교 신도로 3.1 만세운동 때 군산 대야 지경장터에서 3월 4일날 만세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⑯ 문학순 (文學淳 생물 연대 미상)

문학수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1894년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하여 정봉준장군의 백산봉기에 함께 하였고 우금치 전투에서 살아 돌아왔다.

⑰ 하치홍(河致弘 ? ~ 1894. 11.24)

하치홍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²⁹⁾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

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 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⑱ 이경한 (李敬漢 생몰연대 미상)

이경한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⑲ 김래경 (金來敬 생몰연대 미상)

김래경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⑳ 이중백 (李仲白 생몰연대 미상)

이중백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29)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6쪽.

②① 김기서 (金奇瑞 생몰연대 미상)

김기서는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②② 조학동 (趙學東 생몰연대 미상)

조동학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②③ 권덕수 (權德秀 생몰연대 미상)

권덕수는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②④ 김윤칠 (金允七 생몰연대 미상)

김윤칠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을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㉕ 김달환 (金達煥 생몰연대 미상)

김달환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㉖ 서경삼 (徐京三 생몰연대 미상)

서경삼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㉗ 김영언 (金永言 생몰연대 미상)

김영언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㉘ 이기찬 (李起贊 생몰연대 미상)

이기찬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㉔ 조만홍 (趙萬弘 생몰연대 미상)

조만홍은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㉕ 박경희 (朴京喜 생몰연대 미상)

박경희는 죽산부사 이두황의 기록에 “1894년 11월 22일 나포에 도착하여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는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를 수색하여 임피에 다다라.”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 임피 나포에서 포살한 14명에 포함된 참여자이다.

3. 군산진(群山鎭) 지역

군산진은 현재 군산시 내항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이 그 범위이다. 본래 옥구현 북면 지역이었다가 세종 8년(1426) 조운창고인 군산창을 방어하고자 군산진이라고 하는 수군진이 만들어지며 유래한다. 이후 1879년 군산진이 독진(獨鎭)³⁰⁾으로 승격되어 27개 리(里)가 군산진 첨사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며 독자적인 세력을 지니게 된다. 특히, 군산진은 전북지역 7개 읍의 세곡인 쌀과 콩을 저장하는 조운 창고와 조운선이 있는 포구였다.

군산진은 당시 수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필요성에 조성된 특별 행정구역이다. 군산진의 관리자는 종오품 첨사가 임명되었다. 군산진³¹⁾이 옥구

30) 조선 후기 변방이나 군사요지에 설정한 독립진영.

31) 『여지도서』, 전라도 옥구편, 1760.

현 북면에 속해있던 1872년 기록에 의하면 가구수 741호에 2,83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옥구현 8개면 중 가장 큰 규모의 면이었다. 『세종실록 지리지』³²⁾에 “군산은 옥구현 북쪽의 진포에 자리하고 있는데 전함이 중함 4척, 별함 4척, 군사 461명, 초공 4명 등이 있다”라고 적고 있다.

군산진의 관청 건물은 군산진성 내에 위치하며 아청과 아내, 책당, 군기고 등이 모여 있고 조금 남쪽으로 이청, 조북청, 장청 등의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군산진성 인근에는 군산창과 구영리, 강변리 등의 마을들이 있었다. 군산진성 인근의 포구인 군산포에는 주막과 객주, 여각 등이 줄지어 서 있고 장사꾼들이 많았다. 군산진은 1895년 갑오개혁으로 진영은 폐지되고 옥구현에 복속된다. 군산진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기간의 역할은 연구자의 앞 논문에서 언급하였다.³³⁾

1) 참여자의 특징

군산진은 남북점과 관련하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다. 그러나 군산진에 동학 전파와 농민군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동학의 전래와 관련하여, 1894년 11월 30일 군산진을 점령한 서산군수 성하영의 장계³⁴⁾에 의하면 “그리고 그곳 진의 문규선은 10년 가까이나 오랫동안 동도에게 물든자이기 때문에”라고 표현하여 좌수 문규선이 동학을 믿은 지 10년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영사관 기록³⁵⁾에는, 1894년 6월 군산진이 주민들의 봉기로 동학에 점령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군산진의 남북점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동학이 전래 된 것은 1884년 해월 최시형

32)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옥구현, 1454.

33) 김중규, 2019,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 51.

34) 순무선봉진등록, 1894, 「순무선봉진등록 제6」,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편 1894, 7월, 236~237쪽.

이 미륵산 사자암에서 호남 포교시 군산의 임피, 옥구와 함께 군산진도 포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씨로 보는 참여자 신분계층과 주요 활동거점을 확인해보면 군산진은 일제강점기 이후 도시화 되어 주요 지배계층 성씨가 남아 있지 않아 참여자 성씨(姓氏)와의 비교가 어렵다. 다만 지도자로 지목된 좌수 문주선은 양반 가문인 남평 문(文)씨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군산진의 참여자 중에는 제주 고(高)씨(1명), 김해 김(金)씨(4명), 담양 전(田)씨(2명) 등 주소지가 확인되어 본관을 알 수 있는 참여자가 있다. 그런데 이들 성씨는 인근 옥구와 임피의 지배계층 성씨들로 확인되어 군산진지역이 군산포와 조운에 따른 상업 및 군사적 환경 때문인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옥구와 임피와는 다르게 중인 이상의 지배계층이 다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주요 거주지역은 1895년 2월 19일 작성된 군산진의 〈비퇴수도기〉³⁶⁾에 기록된 참여자들의 거주지를 볼때 경포리, 석치리, 신평리 등으로 보이며 특히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기록인 〈비퇴수도기〉를 볼 때 경포리는 군산진의 최대 동학 활동지로 추정된다.

2) 참여자의 현황

군산진 출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15명이다. 군산진의 농민군은 지역 지도자인 좌수나 곡식 담당자, 화약인 자초 담당자, 포수 중에 우두머리인 도포수 등 중인 이상의 신분 계급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① 문규선 혹은 문주선(文奎善 혹은 文周善 ? ~ 1894. 11. 29)
문규선은 군산진의 좌수다. 1894년 11월 29일 서산군수 성하영이

36) 〈乙未二月日匪類囚徒記 (을미2월 비퇴수도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소장, 1895.

보고³⁷⁾하기를 “서천과 한산읍 동학도를 격파한 뒤에 달아난 적이 군산진에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에 바다를 건너 군산에 도착하니 일개 진(鎭)의 아전과 백성들이 대부분 사악한 데 물들어 비류와 한통속이 되어있었다. 좌수 문규선은 오랫동안 동학에 물든 자로 붙잡아 총살하였습니다.”라고 문규선에 대하여 언급한다. 좌수라는 직책이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의 가장 높은 지위로, 좌수는 그 지방의 양반 중에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유림들이 선출하였기에, 좌수 문규선이 동학에 오랫동안 물든 자라서 총살하였다. 하면 놀라운 내용이다. 문규선은 군산지역의 토착 가문인 남평문(文)씨로 추정된다. 1894년 11월 29일 성하영의 보고서에서는 좌수 문규선(文奎善)으로 기록되지만, 갑오년 11월 군산진에서 작성한 문서인 〈향소 열명기〉에는 좌수 문주선(文周善)으로 표기되어, 문규선이 아닌 문주선이 맞는 이름으로 추정된다.

② 박모 (朴某 ? ~ 1894. 11. 29)

박모는 성하영이 1894년 11월 29일 군산진에서 처형한 4명 중 한 명이다. 이름은 알 수 없어 박아무개 라고 기록하였는데, 곡식의 출납을 담당한 박가로 기록된 것을 보면, 장부 정리가 가능한 아전 이상의 신분으로 보인다. 다만 군산진의 주민들이 처형당한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면 군산진 출신이 아닌 타지 출신으로 추정된다.

③ 최모 (崔某 ? ~ 1894. 11. 29)

이름을 알 수 없는 최아무개는 성하영의 진압군에 의하여 군산진에서 처형된 네 명 중 1인이다. 최모씨는 자초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성하영의 보고서에 기록된다. 여기서 자초란 화약을 의미한다. 즉 화약 담당

37)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5쪽.

자 였던 것이다. 화약의 제조인지 만들어진 화약의 관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화약의 책임자인데 다만 당시 군산진의 아전들이 이름을 몰랐음을 볼 때 최모씨 역시 외지 사람이라 이름을 알 수 없었지 않나 추정된다.

④ 문모 (文某 ? ~ 1894. 11. 29)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아무개는 성하영의 진압군에 의하여 1894년 11월 29일 군산진에서 총살당한 당한 4명의 지도자 중에 한명이다. 문모씨는 도포수로 기록돼 있다. 도포수란 포수 중의 우두머리를 뜻하기에 문모씨는 화승총부대의 지휘관급으로 추정된다. 다만 박모, 최모 씨와 더불어 이름이 전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⑤ 허공집 (許公執 1864 ~ 1916)

허공집은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유공자로 기록된 인물이다. 그는 군산시 중동(경포 혹은 설애) 출신으로 동학혁명이 일어난 해인 1894년에 30세의 장년으로 입도하여 두목으로 활동하였다. 허공집은 접주와 교장을 역임하였다 허공집의 다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⑥ 김현창 (金賢彰 1875 ~ 1937)

김현창은 군산시 산상동 출신이다. 「천도교 옥구교구사」의 서문에서 기록자인 문태표씨는 1894년 이전에 허공집, 김현창씨가 동학에 입도하였고 두목이 되었으며, 교세 확장에 지극한 활약과 심혈을 기울였다고 기록했다.

김현창은 19세인(포덕 36년)에 입교한 후 바로 두목이 되었고, 아기 두목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는 교구장을 하였고, 익산에 천도교당을 설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⑦ 고진호(高鎭號 1859 ~ 1895. 2. 21)

고진호는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신평마을에서 출생하였다. 1894년 동학혁명에 참여하였고, 1895년 2월 체포되어 2월21일 옥구현 동현에서 관군에게 처형되었다. 친지들은 수소문 끝에 고진호의 시신을 수습하여 현 군산시 나운동 대전마을 앞산에 안장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참여자 자료에 등록되어 있다.

⑧ 김학배 (金鶴培 1862 ~ 1910)

김학배는 군산진 관내인 석치마을에서 1862년 출생하였다. 갑오년에 32세의 장년이였다. 족보 이름은 학배이고, 초명은 항배이며, 자는 문명이다. 석치마을은 김해김씨 안경공파의 집성촌으로, 김학배는 석치마을 김씨 집안에서 장손 개념의 위치였다. 김학배는 학문이 깊어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으며, 동학에 입도한 후 갑오년 동학혁명 기간에는 설애(경포)의 접주로 활동하였다.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기록인 <비퇴수도기>에 석치리 출신 김해김씨 두명과 신평리 출신 담양전씨 두명이 기록되는 것은 이일대의 유명한 접주였던 김학배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⑨ 김사원 (金士元 생몰연대 미상)

김사원은 1895년 2월 19일 작성된 군산진의 <비퇴수도기>³⁸⁾에 체포된 동학농민군의 명단에 이름이 있다. <비퇴수도기>를 통해서 김사원의 출생 혹은 사망일은 알 수 없지만 그의 거주지가 경포(설애) 임은 알 수 있다. 경포는 서울로 가는 포구라 하여 설앤포구라 칭하는 곳으로, 군산진 석치마을 출신 김학배가 경포의 접주였다 하여 설애포구로 불리었다. 따라서 김사원은 김학배 접주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38) <乙未二月日匪類囚徒記 (을미2월 비퇴수도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소장, 1895.

⑩ 안덕량 (安德良 생물연대 미상)

안덕량은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인물이다. 안덕량의 출생 및 사망일은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김사원과 같이 경포 출신임은 <비퇴수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경포는 설애포구라 불리던 곳으로 군산진이 칠읍해창이 자리한 군산포를 중심으로 한 관용 포구였다면 경포는 민간인 포구로서 규모가 큰 포구였다. 그리고 설애접주 김학배가 활동하던 곳으로 안덕량과 김사원도 김학배 접주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⑪ 김응방 (金應方 1869 ~ ?)

김응방은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인물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김응방은 군산진에 속한 석치마을 출신이다. 석치마을은 김해김씨 안경공파가 거주하는 집성촌 마을로 이 마을 출신인 김해김씨 종손이며 배움이 깊었던 김학배가 설애포구의 접주를 하였기에 석치마을 출신들이 동학혁명 때 농민군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김응방은 족보 이름은 남식이며, 응방은 어릴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1869년생으로 갑오년에는 25세의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농민전쟁에 참여하였다.

⑫ 김종록 (金從祿 1878 ~ ?)

김종록은 자는 영숙이다. 군산진에서 기록한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인물이다. <비퇴수도기>에 따르면 김종록은 군산진 석치마을 출신이다.

김종록은 석치마을을 근거로 한 김해김씨 안경공파 집안의 일원으로 동학혁명에 참여 할 때 나이가 1878년생으로 16세였다. 요즘 나이로는 청소년이었던 김종록을 잡지 못하자 기록에 의하면 연좌제에 따라 그 아버지인 김학수(족보이름 달배 자 학수)를 대신 체포했다고 한다. 체포 당시 김학수는 45세였다. 김종록은 김학수의 두 명의 아들 중에 큰아들이었다.

⑬ 전준여 (田俊汝 1877 ~ ?)

전준여는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인물이다. 전준여는 군산의 신평리 출신이다. 신평리는 담양전시 야은파들의 집성촌이다.

<비퇴수도기>에 따르면 그는 체포되지 않고 대신 연좌제에 따라 조카인 전두용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전두용은 담양전씨 족보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전준여는 1877년생으로 족보의 이름은 전용균이다. 준여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신평리는 군산진 내에 위치한 마을로 1리와 2리의 두 마을이 있었다. 석치리와 이웃하고 있어 설애접주 김학배와 함께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⑭ 전행선 (田行先 1865 ~ 1940)

전행선은 군산진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체포된 인물로 기록된다. 전행선은 군산진에 속한 신평리 출신이다. 신평리는 담양전시 야은파들의 집성촌이다. 전행선은 호적 이름은 윤수이고 자가 행선이다. 1865년 출생하여 갑오년에 29세의 젊은이였다. 전행선은 학문이 높고 효행이 지극하여 선행을 많이 행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1940년에 사망하여 옥구 선재리에 묻혔다.

⑮ 양가 (梁哥 생물연대 미상)

양가는 이름은 확인할 수 없는 양씨 성의 인물이다. 군산지역에서 작성한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체포된 인물로 기록된다. 기록에 임피 출신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양가는 임피의 양반 가문인 남원 양씨로 추정된다.

II.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중요 활동거점

1894년 군산의 전 지역에서 있었던 동학농민혁명 당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늦게서야 군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 조명되고 있다. 오늘의 연구가 연구자들만의 학문이 아닌 일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을 바르게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갑오년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함께 알려질 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 중요 활동거점과 장소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요활동 거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첫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군산시 지역사 측면의 장소성이 있을것. 둘째 중요 활동거점은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 앞서 군산지역 참여자의 특징 및 주요 활동지에서 언급된 장소들 역시 대상의 후보로 검토한다. 중요활동 거점에 대한 서술은 옥구(2개소), 임피(3개소), 군산진(2개소)으로 나누어 한다.

1. 옥구지역

1) 옥구읍 상평리 읍내마을 구 상평초등학교 “구 옥구현 관아터”

“구 옥구현 관아터”는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다. 옥구 읍내리는 과거 옥구현의 현치가 있던 옥구읍 상평리 읍내마을이다. 현재는 폐교된 상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과거 옥구현을 다스리는 동헌이 자리하고 있던 마을로 돌로 쌓은 옥구읍성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읍성마을이었다. 지금도 옥구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향교의 입구에는 과거 옥구를 다스렸던 수령들의 영세불망비가 줄지어 서 있어 과거의 영화를 말해 준다.

옥구 상평리 읍내마을은 1894년 3월 녹두장군 전봉준이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을 올린 백산봉기에 참여한 옥구 동학농민군 두목 허진³⁹⁾과 관련된 곳이다. <전라도고부민란시초>⁴⁰⁾에 의하면 “~1894년 3월 8일 전록두가 거느린 수천명이 부안읍에 들어가 군기고를 탈취하였고 옥구, 태안, 고부의 군기고도 탈취하여 고부에 진을 쳤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당시 전국각지의 동학교도와 농민들 8천여 명이 백산에 집결했는데 오지영이 쓴 「동학사」에는 “백산봉기에 참여한 각 지역의 두목들 중 옥구의 허진”이 기록되어 있다. 즉 옥구의 허진 두목이 옥구현의 무기를 탈취하여 백산봉기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1894년 옥구현의 현감은 조병징이었다. 그는 세금 징수와 운송의 부패로 고부군수 조병갑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평가되는 전운갑 조필영의 아들이었다. 조필영, 조병징 부자와 군산의 인연 또한 차후 화인이 필요하다.

2) 대야면 “지경리와 천도교 옥구교구교당”

“지경리와 천도교 옥구교구교당”은 옥구지역 참여자들의 주요 활동 지역으로 지역사적 의미가 큰 장소이다. 옥구 지경리 금반에는 군산에 하나뿐인 천도교 옥구교구 교당이 남아 있다. 지금은 교도가 없어 운영하지 않는 교당이다. 천도교가 동학을 계승했다 하지만 1894년 농민혁명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는 데는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이곳을 중요 장소로 생각하는 이유는 갑오년 옥구지역 동학농민군의 상황과 그 이후 일제강점기 3.1만세운동과 민족해방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한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장경화 대접주 등 갑오년 옥구지역 농민군들의 흔적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지경리는 초기

3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9,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

40) 『전라도고부민란시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장 자료.

옥구지역 동학교도들이 어떤 상황속에서 포교를 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지경리의 명칭은 임피와 옥구 땅의 경계라는 의미이다. 즉 초기 동학교도들은 현청이 있는 읍내리나 양반들이 자리 잡은 큰 마을에서는 포교와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고을과 고을의 경계에 위치 한 한적한 곳 그리고 평민들이 거주하는 한미한 마을을 거점으로 포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옥구현 남북면에 속하는 지경리는 당시에는 옥구현과 임피현의 경계에 위치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군산에 한곳 뿐인 옥구 천도교 교당도 동학농민혁명의 패배 후 정부의 탄압과 감시속에서도 은밀하게 살아남은 교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장소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곳이 1917년 대야면 지경리 우덕마을 교당이다, 오늘날 대야면 소재지(대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우덕마을에 군산 최초의 천도교 옥구교당이 만들어졌다. 또한 「천도교 옥구교구사」에서 갑오년에 활동했다고 기록하는 인물인 장원경과 오사옥 등이 지경리에서 출생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3.1만세운동으로 천도교가 탄압의 대상이 되는 일제강점기 옥구교당은 우덕마을에서 멀리 않은 회현면 증석리 방채마을과 대야면 지경리 금암마을로 옮겨 다니며 명맥을 유지한다. 그런데 방채마을과 금암마을은 소속면 만 다르지 이웃한 마을이다. 면(面)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들이었다.

2. 임피지역

1) 나포면 “원나포리 공주산 일대”

“원나포리 공주산 일대”는 이두황의 진압군이 나포일대에서 임피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총살한 지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현재 나포면에 위치한 원나포마을은 명칭 그대로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시대 나포리가 위치 한 곳이다. 당시에는 임피현 북삼면 지역으로 옥곶리, 장상리가 북삼면의 지역이었다. 금강 변에 자리한 공주산을 중심으로

위치한 나포리는 금강의 포구마을로 유명한 곳이었다. 갑오년 나포에는 임피의 동학지도자인 진관삼이 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이곳을 중요거점 장소로 보는 이유는 회소 운영 이외에도 죽산부사 이두황의 진압군이 나포에서 동학 가담자 14명을 체포하여 강변에서 포살하였기 때문이다.

이두황은 근대기 가장 문제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미 1894년 4월 초토사 홍계훈의 경군 지휘부 장교로 군산에 상륙하여 군산과 인연이 있다. 그런데 동학군의 우금치 패배 후 농민군이 패퇴하는 과정에 이두황이 다시 군산에 오게 된다. 그곳이 나포이다.

이두황이 이끄는 장위영군은 동학군을 쫓아 1894년 11월 14일 이인(利仁)에 도착했다가 15일 새벽 노성(魯城) 공격에 참가하고, 황화대(黃華臺) 싸움을 치르고, 노성으로 환군하였는데 18일 다시 노성·은진을 거쳐 금강을 따라 남하하며 강경, 용안, 웅포를 거쳐 22일에는 나포(羅浦)에 도착한다. 이두황 군은 나포에서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23일에 또 일본군 사관의 지시로 강을 따라 내려가 서포(西浦)를 수색하여 임피(臨陂)에 다다랐고,”고 기록한다. 『갑오농민혁명사』⁴¹⁾에서는 “나포(羅浦) 하치홍(河致弘), 이경한(李敬漢), 김래경(金來敬), 이중백(李仲白), 김기서(金奇瑞), 조학동(趙學東), 권덕수(權德秀), 김윤칠(金允七), 김달환(金達煥), 서경삼(徐京三), 김영언(金永言), 이기찬(李起贊), 조만홍(趙萬弘), 박경희(朴京喜) 등 14명을 나포에서 총살”하였다고 기록한다. 이두황이 “동도 몇 명을 정탐하여 붙잡아 처리하였으며, 책자로 만들어 급히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짧게 보고 한게 14명의 나포리 동학도인 것이다. 당시 총살이 강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장소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주산 기슭은 포구이며 나포리의 상징적 중심지이기에 중요 장소로 보고자 한다.

41) 최현식, 1994, 『갑오농민혁명사』, 신아출판사, 285쪽.

2) 김문화 접주가 활약한 “성산면 성동마을 일대”

“성산면 성동마을 일대”는 동학농민군 참여자와 지역 반대세력 간에 갈등이 폭력적 상황으로 전개된 장소로 지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성산면 성동마을은 군산의 동학 관련 사건 중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장소이다. 월포라고 하는 금강의 나루터를 외부 출구로 이용하는 오성산 서쪽 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은 한마을에 살던 동학교도와 그 반대 입장의 주민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웃 사촌지간이었던 그들이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는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은 조선왕조 말기의 사회적 부패가 원인이었다. 타락한 왕조와 지배계층의 문제를 모두 백성들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아픔이 벌어진 곳이었다.

성동마을 사건은 가해자인 고태홍과 진압군으로 참여한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 문서>⁴²⁾에 기록되었다. <미나미 고시로 문서>에는 “임피 북일면 성동⁴³⁾의 탁지대신택⁴⁴⁾ 산지기 고도정이 문보합니다. 본동의 접주 김문화는 동학의 괴수라고 일컬으면서 한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하였습니다. 도정은 7월에 그의 행패를 견디기 어려워 집을 버리고 달아나 숨어 버려 저희 집은 회소(會所)가 되었습니다. 본동의 잔민(殘民)들에게는 세미를 어느 명목으로든 두세 번이나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거주민들이 대부분 유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

42) 미나미 고시로, 2015, 「미나미 고시로 문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5』, 동학혁명기념재단, 139쪽.

43) 성동은 현 성산면 성덕리를 칭함. 옥구문화원, 「우리 마을의 유래」, 1994 / 연구자 조사에 의하면 성동마을은 군산시 오성산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북쪽으로 금강을 접하여 월포라는 나루터가 있는 제주 고씨와 김해 김씨가 100여 호 거주하였던 마을이었다.

44) 탁지부대신택 묘지기란 1894.6.25. 김홍집 내각 때 탁지부대신이 된 어윤중의 부모 묘를 모신 선산의 산지기를 의미함 관련 자료로는 고종30권,30년(1893 계사 - 8월 21일 : 경오) 정언(正言) 김만제(金萬濟)가 올린 상소에 “어윤중이 임피(臨陂)에 가서는 부모의 무덤을 돌아보느라고 마을에 폐를 끼쳤으며”

다. 그리고 연변에 오가는 배들을 마음대로 붙잡아 들었으며, 장사꾼의 전곡을 무수하게 탈취하였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남긴다. 또한 “~ 다만 이 형편을 틈타 곧장 본동으로 들어가 이달 25일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즈음에 마을 앞에 불을 지르고 성동리의 접주 김문화를 결박하고 불에 던져 곧바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놈의 집도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그밖에 무지한 동도(東徒) 거주민으로 구타를 두려워하여 입도(入道)한 자들과, 도박 빚을 피하여 겉으로만 도를 받드는 체하는 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그림자처럼 배도(背道)하였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문서인 도정(都正) 고태홍이 전라감사에게 올린 소지⁴⁵⁾에는 앞부분은 미나미 고시로 문서의 고도정 문보와 같으나 뒷부분은 “~ 그런데 지금 경군이 내려와 동학도들을 제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11월 25일 성동에 들어가 김문화를 불에 태워 죽이고 나머지 일당들도 모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밖에 입도자 4~5인은 동학도들의 구타에 못 이겨 돈을 내고 명색만 입도한 자들로서 이때를 타 김문화 일당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모두 춤추며 나와 큰소리로 배교 한다고 외쳤습니다.”라고 좀 다른 내용을 기록한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 미나미 고시로 문서의 고도정은 전라감사에게 글을 올린 도정 고태홍이며 그가 접주 김문화 뿐만 아니라 김문화와 함께한 동학농민군들을 같이 불태워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동마을은 김문화접주의 비극과 함께 근대기 조선왕조 최고의 경제관료였던 탁지부대신 어윤중 부모의 묘가 위치하여 어윤중과 동학의 연관성도 확인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이다.

3) 김준홍접주가 동학 재기를 꿈꾼 “오성산 동편 기슭 조씨제각 인근 산막”

“오성산 동편 기슭 조씨제각 인근 산막”은 갑오년 전쟁이 이후 동학

45) 군산시사편찬위원회, 2000, 『군산시사』, 제3장 제3편, 911쪽.

재기 노력의 현장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성산면 수심마을에 위치한 물탕골 아래쪽 조씨제각 일대는 갑오동학농민혁명 기간 접주로 활동한 김준홍(金準弘 1863~1900.4)이 동학의 재기를 노리며 하던 산막이 자리한 곳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김준홍은 전라북도 임피 오성산 산막 출신이다. 1863년 출생하여 1894년 7월에 임피에서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동학혁명 실패 후 살아남아 1899년 9월 동학 재계를 도모하다 새로운 동학 접주로 추대되어, 1900년 4월 8일 익산 배산에서 야유회를 가장하여 모임을 갖고 일본인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다가 임피 오성산 산막에서 체포되어 1900년 4월 전주 감영에서 처형되었다. 김준홍은 오성산 산막 혹은 산막리라 불리는 집에서 체포된다. 현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 인근에 산막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산면 수심마을 오성산 주봉 능선에 위치한 조씨문중의 제각 인근 우물터 옆 집터는 과거 마을사람들이 산막이라 칭하던 가옥 한 채가 있었다 하는데 이곳이 김준홍의 거주지인 산막으로 추정된다. 수심마을 산막은 농민전쟁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외세 저항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다.

3. 군산진 지역

1) 홍계훈의 진압군이 상륙한 “군산진 성터 (내항 수덕공원)”

“군산진 성터 (내항 수덕공원)”는 홍계훈의 경군이 상륙한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⁴⁶⁾ 군산진성터는 군산시 해망로 내항에 위치한 수덕공원을 과거 이곳은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진성이 있던 곳이다. 현재는 군산진성이 위치했던 수덕산도 일제강점기 군산내항 축항공사의 토사로 깎여나가 나지막한 동산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군산진성의 포구였던 군산포(현 군산 해양경찰서)는 1894년 4월 동

4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1894, 5, 18 동학당에 대한 속보.

학군을 진압하려는 홍계훈의 경군이 상륙한 곳이며⁴⁷⁾ 1895년 3월에는 전킨과 두루 선교사가 도착하여 선교사역을 하였던 곳이다. 갑오년 군산진 참사는 신영희(申永熙)와 최건수(崔健洙)였다. 군산진의 관청 건물은 토성인 군산진성 내에 위치하며 아청과 아내, 책당, 군기고 등이 모여 있고 조금 남쪽으로 이청, 조복청, 장청 등의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군산진이 동학농민혁명 때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던 이유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포구로서의 기능이다. 군산진에는 군산포가 위치하고 있어 영광의 법성포와 함께 중부 서해안의 중요 조운 포구였다. 둘째는 육상 교통로의 거점이었다. 군산진에서 운영하는 군산창으로 세곡을 운반하기 위해서 전주, 무주, 진안, 장수 등 전북의 중부와 동부지역 고을들은 군산까지 우마차가 왕래할 수 있는 교통로가 만들어져 있었다. 때문에 군산진은 전라북도 각지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원점이었다. 셋째는 군사기지였던 군산진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들 수 있다. 군산진성은 해자를 갖춘 토성으로 판옥선이 배치되었던 수군기지였기에 군산진성을 확보하면 금강 수운을 장악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었다. 넷째로 군산진은 금강의 물류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관문이었다. 군산진은 서해와 금강이 만나는 강의 입구에 자리하여 한해 수만척의 배들이 왕래하는 해상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어 서산군수 성하영의 보고⁴⁸⁾와 고도정의 문보⁴⁹⁾ 내용을 볼 때 갑오년 전쟁의 와중에도 자체적으로 통행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였다. 따라서 군산의 동학농민혁명을 언급하며 군산진성을 빠트릴 수는 없다.

4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6, 『반란의 역사를 넘어세계의 역사로-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도록』, 53쪽.

48)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5쪽.

49) 미나미 고시로, 2015, 「미나미 고시로문서」,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39쪽.

2) “중동 경포천 변 (서래당산)”

“중동 경포천 변 (서래당산)”은 군산진의 동학세력 중요 거점지역으로 지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중동은 일제강점기부터 불리기 시작한 지명이고 본래 한자로는 경포(京捕), 우리말로로는 서래 혹은 슬애(서울가는 포구)라 불리던 곳이다. 지금도 경포천이 금강과 만나는 곳에 당산이 남아있어 매년 당제가 이루어진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지역에서 가장 독특하고 인상적인 장소로서 기억 될만 한 곳이다. 그 이유는 이곳이 군산진의 핵심적인 동학활동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첫째 경포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산진의 실질적 경제활동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산진은 27개 리(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군산포와 경포 두 곳으로 볼 수 있다, 그중 군산포는 군산진성을 중심으로 한 수군의 진영이며, 조운 조창을 기반으로 한 관용포구 기능을 하는 곳이다. 반면에 경포는 어업을 주로 하는 민간인 중심포구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포는 거주민도 많았고 서천 화양의 용두리(용맹이)로 나룻배가 왕래하여 유동인구도 많은 객주 및 상인들의 거주지였다. 때문에 동학의 포교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포의 인근에는 경포에서 내륙으로 뱃길이 닿는 경장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일명 서래장이라 불리던 경장시장은 군산지역 인근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포는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군산지역 참여자 중 김학배 설애접주 그리고 군산 경포지역 동학 참여자 체포 문서인 <비퇴수도기>에 기록된 김사원, 안덕량, 김응방, 김종록, 전준여, 전형선, 임피의 양가 등이 경포에서 활동했던 동학농민군이였다. 이밖에도 「천도교 옥구교구사」에 동학참여자로 거론되는 허공집 역시 군산시 중동(경포 혹은 설애) 출신이다. 특히 서산군수 성하영이 군산진에서 포살한 군산진의 동학 주모자 좌수 문주

선(文周善 혹은 문규선)과 박모, 최모, 문모 역시 경포에서 활동하다 체포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그 이유는 본인의 논문에서 확인했듯이 갑오년 11월 30일 서산군수 성하영이“달아난 적이 군산진에 몰래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 부대를 주둔하고 뒤쫓아 정탐해 보니 일개 진(鎭)의 아전과 백성들이 대부분 사악한 데 물들어 비류와 한통속이 되어 무기를 빼앗았으며 ~ (창고에) 쌓아 둔 쌀 602섬과 조(租) 80섬, 콩 7섬은 군산진의 첨사(僉使) 최건수(崔健洙)가 있는 곳에 맡겨 두었습니다”⁵⁰⁾등의 기록을 보면 최건수 첨사가 군산진에 부임하여 있는 기간에도 군산진(鎭)의 아전과 백성들이 대부분 사악한 데 물들어 비류와 한통속이 되어 무기를 빼앗았으며, 공사로 내왕하는 배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실은 곡물을 충을 쏘며 빼앗아 창고에 쌓아 두고 출납할 때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마치 관청의 장부와 같이 하고 한다. 그런데 성하영은 빼앗은 곡식을 군산진 첨사 최건수가 있는 곳에 맡겨 두었다고 한다. 이 글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군산진에는 최건수 첨사가 있는 공간과 동학에 물든 아전과 백성들이 있는 두 곳의 서로 다른 공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전과 백성이 있는 공간도 내왕하는 배들에게 세금을 빼앗을 수 있는 포구였다.

이를 볼 때 군산진 27개 리(里)중에서 군산진영의 군산포와 견줄 수 있는 포구는 경포 즉 설앤폐구인데 외지에서 온 진압군들은 그냥 경포, 군산포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군산진으로 통칭하며, 빼앗은 곡식을 최건수 첨사가 있는 군산진영이 있는 진성 내에 보관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포 오늘날의 중동 일대는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에서 가장 변화의 열기가 뜨거워던 곳이다.

현재의 중동 포구는 포구를 지켜주던 서래산도 깎이어 사라지고 서래산 증턱에 있다가 이전된 서래산 당산만이 경포천 옆에 복원되어 남아 있다.

50)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5쪽.

맺음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기간 군산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참여자의 특징과 성격 규명 그리고 그들이 활동한 중요거점 확인에 있다. 연구결과 군산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특징은 이들이 동학의 남북접 측면에서는 옥구와 임피는 북접 계열로 확인되며 군산진은 확인이 어렵다. 또한 참여자의 성씨(姓氏)로 본 신분계층 확인은 옥구지역의 경우 참여자 5명의 성씨를 확인해 본 결과 토착 지배계층의 성씨는 참여자가 없었으며, 이주 지배계층(오씨 1명)과 행정실세 지배계층(장씨 2명)에서는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다. 임피지역은 30명의 참여자 성씨 중에서 토착 지배계층은 참여자가 없고, 이주 지배계층 4명(진씨 1명, 최씨 3명), 행정실무 지배계층 8명(조씨 3명, 이씨 5명) 등 12명의 참여자가 확인되며, 참여자 30명 중 나머지 절반 이상이 지배계층이 아닌 성씨임을 확인했다. 군산진은 주요 지배계층 성씨를 확인할 수 없어 참여자 성씨와의 비교가 어렵지만 15명의 군산진 참여자 중에서 지도자로 지목된 좌수 문주선은 양반 가문인 남평문씨로 추정되며, 이밖에도 제주고(高)씨(1명), 김해김(金)씨(4명), 담양전(田)씨(2명) 등 인근 옥구와 임피의 지배계층 성씨들이 다수 참여자로 확인되어 군산진이 옥구, 임피와 달리 상업 및 군사적 기능의 환경 때문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중인 이상 계층의 참여가 많은 것은 확인되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주요 활동지는 옥구의 경우 「천도교 옥구교구사」⁵¹⁾에 기록된 교인들의 주소지를 볼 때 옥구와 임피의 경계인 현 대야면과 지경리 일대가 주요 거주지역으로 추정된다. 임피의 동학 참여자 주요 거주지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접하고 있는 금강변 포구와 나루터 지역인

51) 문태표, 1963, 『천도교 옥구교구사』, 천도교옥구교구.

성산면 성동, 오성산 기슭 서포, 나포 지역이 주요 거주지역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산진의 동학농민혁명군 주요 활동지역은 경포리, 석치리, 신평리 등으로 추정되며 특히 군산 경포 지역 동학 참여자 기록인 〈비퇴수도기〉⁵²⁾를 볼 때 경포리는 군산진의 최대 동학 활동지로 추정된다.

군산지역에서 확인된 참여자는 50명이다. 이들을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옥구(5명), 임피(30명), 군산진(15명)으로 구분된다. 참여자 중에 군산진의 좌수 문규선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이다. 그 이유는 좌수라는 직책이 조선시대 지방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의 가장 높은 지위이기 때문이다. 좌수는 그 지방의 권력자들인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유림들이 선출하였기에, 좌수 문규선이 동학에 오랫동안 물든 자라서 충살하였다는 내용은 동학 참여자들에 대한 신분계층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놀라운 내용이다. 이처럼 좌수가 동학군에 참여한 사례는 전북지역에서도 그 세력이 컸던 남원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서산군수 성하영의 보고⁵³⁾에 의하면 군산진은 1894년 6월부터 11월까지 동학군의 세력이 유지되는 몇 안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산지역이 향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는 군산지역 농민군이 활동한 중요거점을 총 7개소로 특정하고 있다. 거점지역 7개소를 살펴보면 옥구지역은 “구 옥구현 관아터”와 “대야 지경리, 천도교 옥구교구교당”이다. 임피지역은 “나포면 원나포리 공주산 일대”, “성산면 성동마을 일대”, “오성산 동편 기슭 조씨제각 일대 산막” 등 3개소이다. 군산진의 중요 거점지역은 “군산진 성터(내항 수덕공원)”와 “중동 경포천변 (서래당산)”이다.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연구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므로

52) 〈乙未二月日匪類囚徒記 (을미2월 비퇴수도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소장, 1895.

53) 양호도순무영, 2016, 「갑오군정실기7」,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85쪽.

향후 지속적인 연구보완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간악한 외세를 물리치겠다는 일념으로 일어난 힘 없는 백성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위로하고 되살리는 방법은 그들의 백성과 국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인정해주고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해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시작은 참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소리높여 외친 장소를 기억하는 일에서부터라고 생각한다.

투고일 : 2024. 4. 1.	심사일 : 2024. 4. 26.	게재확정일 : 2024. 4. 29.
-------------------	--------------------	----------------------

〈표 1〉 군산지역 동학혁명 진행 연표

1884년	•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미륵산 사자암에서 호남 포교시 군산 지역 포교
1893년 3월	• 보은 장내리 집회 옥구현 대접주 장경화 참여
1894년 이전	• 입도자 장경화, 허공집, 김현창, 문주선
1894년	• 동학 입도자 오사옥, 신관순, 문학순, 허진, 장원경
1894년 3월	• 옥구현의 허진 옥구현 무기 탈취하여 백산집회에 옥구농민군을 이끌고 참여
1894년 4월	• 군산진에 동학 집압군 양호초토사 홍계훈의 경군 800명 상륙(4일~6일)
1894년 6월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군산진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 주민이 모두 동학에 입도 〈군산진 내부문서〉 군산진 금구두령 김응화, 유사현 등 외지동학 농민군에 점령
1894년 7월	• 군산진의 동학농민군 주력부대 강경으로 이동 성산면 김준홍 동학 입도 점주활동 김학배 설애접주 경포에서 활약 김문화접주 임피북일면 성동마을에 동학 회소설치 최두환 동학 입도
1894년 9월	• 옥구 장경화, 허진 임피 진관삼, 김해룡 2차 농민군 봉기 장한여, 홍교식, 홍경식, 김상철, 최순봉, 유원술, 이정문 입도 거병에 참여
1894년 10월	• 군산진 최건수 첨사 부임(22일), 군산진 군기점검(23일)
1894년 11월	• 성하영의 진압군 서천군 신아포 인근에서 임피 김해룡 등 7명 포살(21일) 죽산부사 이두환의 진압군 나포에서 동학군 14명 포살(22일) 나포사망자 : 하치홍, 이경한, 김래경, 이증백, 김기서, 조학동, 권덕수, 김윤칠, 김달환, 서경삼, 김영언, 이기찬, 조만홍, 박경희 임피 성동마을 김문화 접주 등 다수 지역 반대 세력에게 화형당함(26일) 서산군수 성하영의 진압군 군산진 점령 후 좌수 문주선 등 4명 포살 군산진사망자 : 문주선, 박모, 최모, 문모
1894년 12월	• 옥구출신 동학농민군 최중여 전주감영에서 처형(10일)
1895년 2월	• 옥구출신 동학농민군 고진호 옥구 동헌에서 처형(21일) 군산진 경포에서 동학가담자인 김사원, 안덕량, 김응방, 김학수(아들 김종록 대신), 전두용(삼촌 전준여 대신), 전형선, 임피의 양가 체포 (19일)
1896년 1월	• 옥구출신 동학 지도자 장경화, 허진, 양기용은 강원도 횡성 수래 너미재 아랫마을 은신중인 최시형을 찾아가 동학 재기도모
1896년 4월	• 최시형 각처의 두목들 연락하니 옥구 양기용 등은 온전했다. 기록됨
1899년 9월	• 김준홍, 장한여 동학재기 도모하다 오성산 산막에서 체포
1900년 4월	• 김준홍 전주감영에서 처형, 장한여는 종신행

참고문헌

〈단행본〉

- 군산시사 편찬위원회, 1975, 『군산시사』, 군산: 중앙인쇄.
- _____, 1991, 『군산시사』, 군산: 군산인쇄.
- 김민영·김중규, 2006, 『금강 하구의 나루터 포구와 군산 강경지역 근대상업의 변용』, 선인.
- 김중규, 2001, 『군산역사이야기』, 군산: 나인기획.
- 김태웅, 2018, 『어운증과 그의 시대』, 아카넷.
- 남원향토박물관, 2018, 『남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특별전』.
- 남정근, 1991, 『옥구인물지』, 옥구 문화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특별도록』, 동학기념혁명기념재단.
- _____, 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 2016년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_____, 2016,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특별전 도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_____, 2018, 『강원도와 북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_____, 2018,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동학농민혁명 기념관 특별전 도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_____, 2023,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시찰 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신순철·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 오지영, 1975, 『동학사』, 민학사.
- 옥구군지 편찬위원회, 1990, 『옥구군지』, 중앙인쇄.
- 이병훈, 1995, 『군산개항장 100년』, 군산문화원.
- 조시영, 2015,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2-소모사실 창계일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황현, 2016, 『오하기문 오동나무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역사비평사.

〈논문〉

- 김양식, 2014,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국립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37~62쪽.
- 김중규, 2019,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특징」, 『동학학보』 51, 동학학회, 341~375쪽.
- 박걸순, 2010, 「보은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추진 현황과 방향」, 『중원문화연구』 1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21쪽.
- 박대길, 2012,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 사진 자료」, 『동학학보』 25, 동학학회, 343~249쪽.
- 박맹수, 2002, 「『일사(日史)』와 강진·장흥 지역 동학농민혁명」, 『호남사학』 19, 호남사학회, 353~368쪽.
- 성주현, 2013, 「보은·금구집회의 전개와 동학농민혁명」, 『중원문화연구』 2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49~83쪽.
- _____, 2017, 「아산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역사와교육』 24, 역사와교육학회, 215~243쪽.
- 신영우, 2010, 「보은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연구와 전망」, 『중원문화연구』 1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75~303쪽.
- _____, 2012, 「1894년 고창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민보군」, 『동학학보』 26, 동학학회, 99~140쪽.
- _____, 2013, 「내포 일대의 갑오년 상황과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학보』 29, 동학학회, 7~58쪽.
- 신진희, 2014, 「동학농민혁명 지역별 사례 연구의 성과와 전망」, 『역사연구』 27, 역사학연구소, 131~148쪽.
- 우수영, 2016, 「1894년 경상도 구미·선산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채길순 『옷방데기』와 김용락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를 중심으로」, 『동학학보』 39, 동학학회, 161~190쪽.
- 이병규, 2018, 「원주지역 동학농민군과 의병」, 『동학학보』 49, 동학학회, 103~126쪽.
- 이상식, 1994, 「동학농민혁명과 광주, 전남」, 『향토문화』 33.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Participant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Base of Revolutionary Activities around the Gunsan Region

Joong Kyoo Kim*

This writing is the second research paper delving into the second phase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Gunsan, following the first paper titled “The Developm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Gunsan Region”. This research primarily revolves around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participants and key operational bases of the Donghak Peasant Army within the Gunsan region during the revoluti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conducted around the Gunsan region show noticeable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among participants. When it comes to their alignment with the southern and northern *jeopju*, the regions of Okgu and Impi are categorized as dominated by the northern *jeopju*, while Gunsan-jin shows any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them.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social status based on the surnames of the participants, it appears that the dominant class is less represented in the Okgu and Impi regions compared with Gunsan-jin, in which a significant number of the middle class and above are detected, likely influenced by the presence of its commercial and naval infrastructure.

* Director of a Museum of Gusnan Museum

It is presumed that the focal points of activity for the Donghak Revolutionary Army include Daeya-myeon and Jigyeong-ri areas in the case of Okgu, bordering Okgu and Impi, and ports and ferry terminals along the Geumgang River bordering Seochon-gun and finally, the Gyeongpo-ri area in the case of Gunsan-jin.

Rigorous research has confirmed that fifty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e revolutionary action in the Gunsan region. In terms of geography, these individuals were distributed as follows: five in the Okgu area, thirty in the Impi area, and fifteen in the Gunsanjion area. Particularly, a case study of *Jwasu* Moon Kyu-seon attracts attention. The reason is that he served as *jwasu*, which was the highest position in *yuhangso*, a civic autonomous organization in the reg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Moon's involvement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underscores the diversity of social classes within the ranks of the participants of the revolution given the fact that he was executed by firing. Such instances of participation by members of the elite in the Donghak army were uncommon, except in the Namwon area where Donghak's influence was particularly strong. Additionally, reports from Seong Ha-yeong, the head officer of Seosan-gun, suggest that Gunsan-jin was one of the few areas where Donghak's influence persisted from June to November 1894.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growing recognition of the Gunsan region as a significant area for future research o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is writing also identifies seven different key bases of military action for the peasant army in the Gunsan region, distributed across different areas. Important locations include the former OKgu-hyun Regional Office site, where weapons were seized for the Backsan Uprising and the second key base was located in Daeya Jigyeong-ri and Cheongdogyo Okgu District Church, which accommodated numerous participants of the revolution.

In the Impi area, three main bases are highlighted, including the Gongju Mountain area where Donghak soldiers were executed, The second

location is the Seongdong Village in Seongsan-myeon, where Kim Mun-hwa, as *jeopju*, a director of a regional headquarter, participated. The third location was found in a mountain hut near the Cho clan where Donghak resurgence was envisioned. Two significant stronghold areas are identified in Gunsan-jin: the Gunsanjin Castle Site (Sudeok Park in the Inner Port), where suppressing forces led by Hong Gyeo-hun, a general responsible for suppressing the revolution, landed in 1894, and the Middle East Gyeongpo area (Seorae Dangsan), believed to be a hub of Donghak military activities.

This author hopes that given the fact that fifty participants and seven major activity locations are identified in this paper at the beginning of research related to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Gunsan region, continuous research supplementa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The writer also expects that more research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so that the record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progress in the Gunsan region (Table 1) will be filled with new research results.

This writing aims for a method to console and rejuvenate the sincere aspirations of disenfranchised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revolution with the singular goal of safeguarding their nation from collapse and resisting malevolent foreign forces. It suggests that the first step towards achieving this objective is to acknowledge their genuine devotion to their nation and its people, and to reinstate their dignity and sense of national pride. This paper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itiating this process through tangible actions,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documenting the identities of participants and commemorating the sites where they fervently voiced their aspirations.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the Gunsan Region, Donghak, Gunsan, Impi area